

삼성전자 웨어러블 헬스, 디지털의료기 공인 1호 됐다

갤럭시 탑재 '삼성 헬스' 기능 건강지원기기 등록 일상 건강 모니터링 첫 사례...서비스 공신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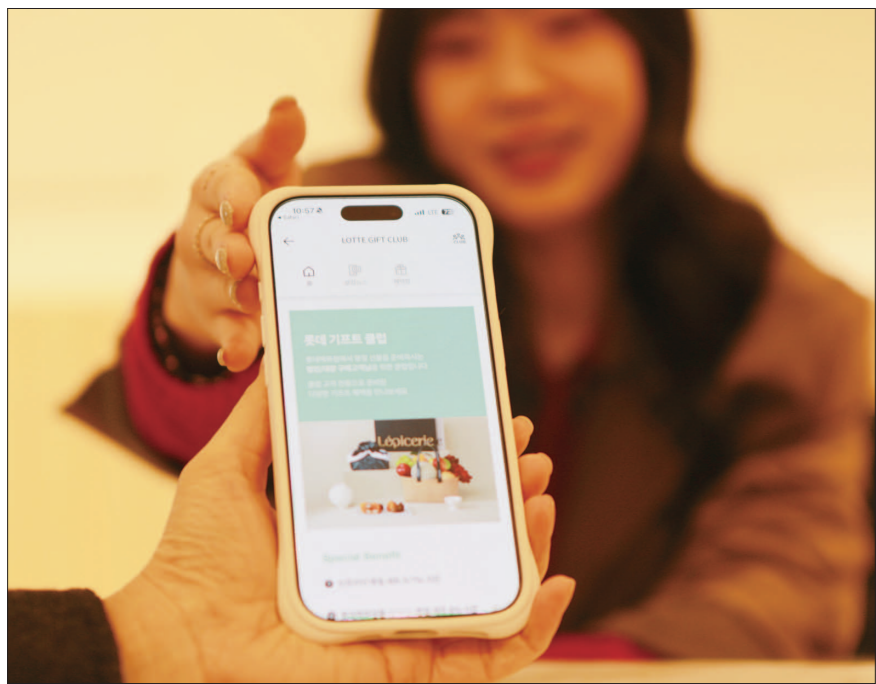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헬스 서비스가 정부의 디지털의료 제도권에 처음 편입됐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의료기기가 질병의 진단·치료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까지 제도권으로 포괄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신고 제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거짓·과대광고를 차단,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도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에서 제공되는 삼성 헬스 주요 기능을 국내 최초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제에

등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와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웨어러블 헬스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등록된 기능은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에 탑재된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걸음 수 측정 등 건강 지표 관리 기능이다.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삼성 헬스는 수면, 활동, 식이, 마음건강 등 주요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다.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돼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하루 중 일 심박수를 자동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산소포화도 역시 일상과 수면 중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호흡기 건강 상태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최중민 삼성전자 MX사업부 Digital Health팀 상무는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 기프트 클럽'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명절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기프트 클럽'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물'에서는 오는 17일까지 100만원 이상 구매한 롯데 기프트 클럽 가입 고객에게 8%의 엘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1209회 로또 1등 22명...당첨금 각 13억7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 120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7, 20, 35, 37,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22명으로 13억719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89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141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1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2만4028명이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직원·임대업주들 “정부 차원 적극 지원 필요”

한미음협의회 등 금융위에 긴급운영자금대출 탄원서 제출

홈플러스 직원과 임점 업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미음협의회는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대출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홈플러스 전 직원들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11개월 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회사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돼 지난 12월 급여를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 받은 데 이어, 1월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흔들리고 있으나, 적기에 자금지원만 이뤄진다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긴급운영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점주들도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적으로營業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물건을 들여 놓고營業을 정상화 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면서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되면 임대점주들은 생계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 회수·보상 조치 실시

스타벅스가 고객 사후으로 제공한 가습기에 대해 전량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최근 제품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겨울 e-프린스 행사 증정품으로 제공된 가습기 2종에 대해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e-프린시를 통해 고객에게 증정된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으로 총 수량은 39만3548개다. 해당 증정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획득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이다. 하지만 제품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 화재 발생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 공급처인 한일전자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사

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와는 별개로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사고 보고를 완료하고, 자발적 리콜 절차를 협의 중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가습기를 보유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반납 시 모바일 카드 3만원권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2일부터 스타벅스 앱을 통해 택배 수거 서비스가 실시되며, 매장 방문을 통한 회수 방법은 2월 초에 스타벅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도시철도 2호선 안전 대응 강화 해양에너지, 현장 비상훈련 실시

해양에너지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도시가스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9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응급조치 비상훈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하 굴착 및 증장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 손상 등 복합 사고 상황을 가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비상상황을 가정해 비상상황 인지 및 상황 전파, 현장 통제와 작업자 안전 확보, 응급조치 비상장비 사용, 대응 요령 숙지 등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 작업자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상장비 사용법과 초기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양에너지는 도시철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상주 안전관리자의 1일 2회 현장 점검과 배관 인공 위험 작업 시 상주 참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365일 24시간 가스누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